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세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와 속국이 된 사건이다. 노예로 팔려가 요셉이 살던 시절에 그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민족에게 고마운 대상이고, 존경받는 대상이었다. 그 요셉이 죽고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 애굽 민족의 시기를 받고, 다시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다윗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은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세계를 살린 민족이었다. 그 백성이 나중에는 앗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왔다. 다윗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지만 200년 만에 또 헬라와 로마에 속국이 된다. 단순한 역사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와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을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첫 인생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광을 누린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창3장 사건).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고, 마귀 형상이 나타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노예, 세상의 포로, 사단의 속국이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놔두시는가? 아니다. 답을 주신다. 살리신다. 그리고 이기고 정복하게 하신다. 그것을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절대 미션(Missio Dei)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요3:16), 소원(딤후2:4), 꿈(요엘2:28)이 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이유이다.

1. 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위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세가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 우리가 이 세가지만 회복되면 어떤 문제가 다시 와도 상관없다. 지진, 전쟁, 전염병, 계속 될 것이나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 세가지를 회복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받을 축복과 응답은 따로 있다.
 - 1) 복음 회복이다.
 - 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 밖에 없다.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자신 밖에 없다. 인간이 가진 원죄(롬3:10, 3:23), 아담 이후에 계속 되는 사단의 역사(행10:38, 엡6:12), 영원한 지옥 저주를 해결해주셔야 한다(마25:41, 히9:27). 그래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제사장, 왕, 선지자).
 - ② 이사야서에 계속 주시는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사7:14),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사9:6),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사11:2), 그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사53:5), 우리 안에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이다(사60:1-2).
 - ③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절대 사랑이다(사43:1-4).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엡2:8-9)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친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역사다. 열심히 하다 안 되면 낙심, 좌절, 포기한다. 나중에는 더 타락한다. 반대로 내가 잘나서 된 줄 알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인생을 산다(마23장의 바리새인들)
 - 2) 전도와 선교 회복이다.
 - 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날 살리시고 이제 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 속에는 “파송”이라는 의미가 있다. 보내는 분이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다.
 - ② 본론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이 그 말이다. 그 분이 이미 내 안에 빛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된다. 문제는 빛을 가진 자가 그 빛을 감추고 있고, 안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 흑암이 덮으니까 다 방황하고, 멸망하고, 후대까지 죽는 것이다(요나가 대표적인 실례)
 - ③ 이사야서에 복음 다음으로 강조되는 언약이 이것이다.
 -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사49:60), 모든 민족 앞에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사55:4),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여지고(사56:7), 모든 나라와 왕들이 돌아올 것이고(사60:3), 그래서 만민을 위해 대로를 준비하고 깃발을 들라는 것이다(사62:10), 그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사60:21).
 - 3) 이 복음과 선교의 미션을 계승하고, 지속하고, 완성할 램네프트 회복이다.
 - ① 본래 램네프트는 1세대 중에 남겨진 자들이다. 베임 받고 남은 그루터기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다(사6:13, 사10:21, 사49:6). 거기서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가 나오는 것이다. 1세대 램네프트 성도들이 중요하다. 발판이다. 그 기도와 헌신을 기억할 것이고, 그 위에 램네프트가 서는 것이다
 - ② 2세대, 3세대들은 그 위에 뿌려진 거룩한 씨이다. 내가 아직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의 절대 해답이신 그리스도와 절대 미션인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자라는 것은 말 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당장 열매 없어도 계속 언약 속에서 나를 바꾸고 갱신하라.
2. 이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콘텐츠라고 한다.
 - 1) 먼저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고 누리지도록 가질 콘텐츠이다. 기도 콘텐츠이다.
 - 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문제에서 참된 감사와 치유와 힘이 나오면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
 - ② 나만의 정시 기도, 정시 예배 회복하라. 자기 전에는 10분만 묵상 시간을 가지라 (전도자의 삶 62가지 묵상)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라(현장 콘텐츠).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4절 상).
 - 2) 어떻게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콘텐츠이다. 미래 콘텐츠이다.
 - ① 램네프트들과 세가지를 나눌 수 있으면 그 시간이 RUTC이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각자에게 맡기시는 미션, 인턴쉽, 포럼이다. 그리고 계속 기도 배경이 되어주라. 이것이 후대에게 빛을 비추는 시간이다.
 - ② 나의 기도 속에 후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 버려지고 외로운 후대 속에 하나님이 쓰실 램네프트가 있다. 그때 떠났던 자녀들도 올 것이라고 했다(4절하)
 - 3) 이 선교와 램네프트 살릴 만큼 직장과 산업에서 응답 받을 콘텐츠이다. 경제 콘텐츠이다.
 - ①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 때문에 열방의 재물도 온다고 했다(5-6절) 이 언약을 잡고 이유 있는 도전을 하라.
 - ② 내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 쓰는 돈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는 것이고, 싹는 것이다.
 - 완전히 흑암 세력을 깨는 빛의 경제이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경제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7절)

결론-미션의 다른 의미는 내 존재 의미이고, 삶의 가치이다. 여기서 꿈도 나오고, 비전도 나오고, 작품이 나온다.

